

한국농어촌신문

기초 양계 강좌



산란계의 사양관리

김 지 태
(광명농장)

사란계는 육계와는 달리 자본회전이 6個月以上 되므로 그동안 투자기간이 길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워 두어야 한다. 또한 사양기록표를 빌려 준비하여 매일 작성하여 그 계준의 상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철저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서 사양관리의 지표가 되며 충분한 참고자료가 된다. 그리고 한 계준이 도태(경제적 수명) 될 때까지는 18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연중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생산물인 계란을 연중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시장유통 관계를 체계화하여 안정된 채란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영규모

1) 산란계 수수

우선 산란할 수 있는 계준수를 계획한다. 최근 경영규모의 적정수수는 최소한 10,000수의 규모가 되어야만 합리적인 경영이 될수 있다. 계사1동에 단위수수는 대기업형태(자동시스템) 일때 10,000수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3,000~5,000수 단위로 1동에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사시설을 여하이 하느냐에 따라 1인이 얼마나 관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1인당 관리수수가 결정된다. 가급적으로는 1인이 1棟을 관리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과거 평사사육시에는 1人이 관리할 수 있는 수수가 불과 500수 정도였지만 최근 시설의 근대화 및 사양기술의 발달로 1인이 10,000수 이상 관리할 수 있도록 점

차 1인당 관리수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 병아리 입추횟수 및 단위수수

예를 들어서 산란할 수 있는 성계를 10,000수 정도로 계획하였다면 3,000수 단위로 年 3回이상 입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되면 육성하고 있는 계준이 항상 3,000~6,000수가 유지될 수 있다.

위와같이 사업을 진행시킬때는 6,000수정도 규모의 육성계사와 3~4棟의 성계 계사가 소요된다.

그러므로 사업규모를 비교하여 입추 횟수의 증감, 또는 단위수수를 증감시켜 년중 균등하게 분할 입추 시킴으로서 항상 같은 수준의 생산물을 원활하게 생산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수규모가 10,000수 이상일 경우에는 농장 자체를 육성농장과 성계농장으로

완전히 구분하여 일시에 입주한뒤 사육하여 성계사로 이동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이상적이며 이렇게 해야지만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다.

3) 계사건축

① 성계사 건축

대략 건물 평당 30~35수를 기준하여 계사를 건축하는 것이 생산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데 산란계 3,000수 기준시 1棟건물이 100~120坪 소요된다(단 cage사육시 가능함) 그러나 실제 야외에서는 평당 40~50수, 심지어는 60수까지 수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질병을 유발시키는 좋은 조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생산성이 극히 떨어져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② 육성사 및 육추실

육성사는 성계사의 반의 규모로 건축하고 성계cage를 이용하여 육성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육성사가 별도로 없게 되면 연속적인 계단이 연결되지 않으며 운영상 많은 차질이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

육추실은 年3~4회 입추하여 육추관리를 하게 되므로 완전계사를 건축하여 보온 및 환기장치의 시설을 갖추어 놓도록 한다.

③ 계사 건축시 유의사항

가) 환기장치를 하여 항상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도록 한다.

나) 벽은 단열물질을 넣어 이중벽으로 건축하고 천정에도 단열장치를 한다. 단열제는 스티로폼 30~60mm 두께로 이용하거나 천정에는 왕겨를 사용하기도 한다.

다) 계사폭은 36尺~40尺 폭으로 한다.

라) 계사입구에는 2평정도의 소독실을 만들어 출입할때 반드시 소독실을 통과하도록 한다.

마) 계사와 계사간격은 최소한 계사폭의 2

배이상 격리 시켜 건축한다.

바) 계사내의 모든 문은 잠글수 있도록 한다.

사) 여름철에는 신선한 물이 많이 필요하므로 급수 및 수도장치를 미리 하도록한다.

2. 입추준비

1) 육추실은 가능한한 성계사와 멀리 떨어진 곳을 선정하여 육추에 임한다. 농장을 별도로 하여 다른 새로운 농장에서 육추하는 것은 더욱 좋다.

2) 육추를 처음 시작 하는 장소는 문제가 없으나 1회이상 육추하였던 장소에서는 모든 청소를 깨끗이 하고 단출 계통의 소독수로 소독한 다음 2個月 이상 일광소독 시킨다.

3) 병아리 품종을 미리 선정하여 부화장에 병아리주문을 확정시켜 놓는다. 병아리를 주문할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한다.

가) 품종의 강건성, 다산성(多產性)대란성, 의 형질을 갖춘 병아리.

나) 종계장과 부화장의 위생상태를 조사하고 경영주의 신용도를 알아본다.

다) 일단 거래가 되면 한곳에서 계속 병아리를 받도록 한다. 일단 믿고 거래를하는 이상 초생추 가격에 대하여 지나친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한다.

4) 육추기를 준비한다.

물통, 모이통, 난로, 육추기(삿갓 또는 gas 육추기), 깔짚(왕겨, 대패밥, 톱밥, 벗짚), 병아리울타리, 연료(석유 또는 연탄)

5) 영양제, 항생제, 소독약 등 약품을 구입 준비한다.

6) 입추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다시한번 훈증소독 (100尺³당 호르마린 35CC, 과망산카리 7.5g)을 하고 출입구에 소독판을 설치한 후 출입을 통제시킨다.

3. 육추관리(0~8주령)

1) 육추면적

육추실 면적은 8주령을 기준으로하여 평당 25~30수 준하여 계획한다.

2) 온도관리

병아리가 도착하기 24시간 전에 온도를 완전히 32~35°C을 려놓는다. 온도 측정은 삿갓에서 10~20cm 떨어지고 병아리 어깨높이에서 측정한다. 다음과 같이 각 주령별로 온도를 기준하되 병아리상태를 관찰해 가며 온도조절을 한다.

주령	온도
1	35~33°C
2	33~31
3	31~29
4	29~27
5	27~25
6	25~23

- 가) 1주간격으로 2~3°C 하락시킨다.
- 나) 1일 온도가 최고, 최저의 온도편차가 10°C 이상 되지 않도록 온도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만일 그 이상의 편차가 생기게 되면 난황의 소화불량 또는 호흡기질환의 질병에 감염되기 쉽다.
- 다) 4주령 이후에는 외부온도와 별차이가 없으면 서서히 폐온 시킨다.

3) 사료 및 사양관리

가) 처음주는 물은 미지근한 설탕물이나 영양제를 혼합한 물을 주도록 하되 처음에는 병아리 한마리 한마리를 잡아서 약물을 먹인 다음 육추실에 풀어 놓도록 한다.

나) 첫모이는 초생추사료에 난황(계란을 삶아서 난황만 가루로 만든다.)을 혼합하고 약물에 혼합한 반죽모이를 주도록 한다. (약 3일령까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료를 주도록 한다.)

다) 실제 야외에서는 고단백질 사료인 육계 전기사료를 1주동안 급여 하기도 한다.

라) 7일령까지는 종야 점등을 해주므로서 병아리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습도는 처음에는 70%의 상대습도를 유지시키나 1주일 경과되면서 부터는 서서히 60%로 줄인다. 습도조정은 난로위에 물을 끓여 조절하거나 분무기로 바닥에 물을 약간 분무하기도 한다.

바) 각 품종별로 사양표준이 있으므로 표준사료 급여량을 근거로 조정하여 한다.

예) H 품종 사양표준

$$\left\{ \begin{array}{l} \text{초생추사료 CP: 20\%} \\ \text{ME: 2,700 Kcal} \\ \text{중추사료 CP: 16~17\%} \\ \text{ME: 2,640 Kcal} \end{array} \right.$$

주령	체중	1일 1수당 사료급여량	사료명
1		10g	초생추사료
2	110g	16	"
3		27	"
4	260g	36	"
5		40	"
6	450g	51	중추사료
7		58	"
8	660g	64	"

사) 사료변경시 6주령 부터는 중추사료로 급여하되 병아리 상태가 불량하면 (표준체중 미달), 1~2주 연장시켜 초생추사료를 급여하도록 한다.

4) 방역관리

가) 0~3일간은 항생제 및 영양제를 투여하여 호흡기 질병을 예방한다.

나) 뉴캣슬 예방접종

예방접종 계획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이 접종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3주령 비강접종

2주령 음수1수분 또는 사독 0.5CC접종

4주령 사독 1CC접종

8주령 사독 1CC접종

다) 계두접종

2주령 또는 4주령에 1회접종하고 60일령에 보강접종 한다.

2주령시 } 1 침날개막에 천자접종

4주령시 }

60일령시 : 2 침날개막속에 천자접종

5) 육추관리시 주의사항

가) 폐사율이 높은 시기이고 산란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므로 세심한 관찰로 육추에 임한다.

나) 불량추를 육추실에 수용할 때 과감하게 도태시킨다. 약추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질병의 시초가 된다.

다) 병아리의 밀집사육은 만병의 근원이므로 최대한 면적을 주어 환기가 잘되어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도록 한다. 이때에 충분한 온도여건하에 환기시키도록 한다.

라) 첫모이는 가능한 빠른시간내에 급여하도록 한다.

마) 2주령 부터는 병아리가 털을 갈기시작하는 시기이고 성질이 예민해지고 식욕이 떨어지므로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관찰 하도록 한다.

바) 각약증, 콕시증예방제를 투여한다.

사) 폐온시 야간만 급온하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온도를 내리도록 한다.

아) 물통 청소는 최소한 1일 1회정도 꼭 고 더러운 깔짚은 즉시 교체한다.

자) 육추사내에 샛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차) 2~3주령시 부리자르기(디비킹)질시

카) 병아리에게 예방접종, 외부적충격 또는 기후가 고르지 못한 경우에는 전후3일간 항생제 또는 영양제를 투여하며 사고시 원인을 분석하여 기록하여 둔다.

정확하고 신속한

시세엽서

대한양계협회 발행
1년구독료 5,000원